

초국가주의적 현상 속 재태한인*

김 홍 구**

국문초록

이 글은 초국가주의 현상과 관련해서 재태한인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구성은 재태한인사회의 형성과정과 이주동기, 일상적 삶과 초국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진다.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태국 한인사회가 점차 “체류자 중심 이민사회”로 변하고 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체의 투자러시가 이루어지고 관광자유화에 따른 관광중사업체의 증가와 1990년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 지역에서 본격화된 지역협력에 기인한다.

2000년대 이후 이주해온 다수의 한국인들은 현지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모국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체류국가의 새로운 전통과 문화도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유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태한인은 양국을 넘나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두 국가에 두 곳의 거주지를 유지하고,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SNS는 모국과의 연계와 동시성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국적 이주민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태국여성과의 결혼한 이민원로 2세대, 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여 이혼 가정의 2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대 태국어과 교수, hongkoo@bufs.ac.kr

세들은 비교적 현지사회에 동화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위주의 교육을 받은 한국인 가정 2세대들은 현지화 정도가 약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약화된다.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체류 국가의 언어 구사정도는 곧 해당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재태한인들은 언어장벽으로 한인 이민사회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며, 태국사회로의 동화가 힘들게 되는 경향이 있다.

주제어: 재태한인, 이주동기, 생활양식과 민족정체성, 양국을 넘나드는 삶의 방식과 초국적 정체성, 자녀 교육, 언어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의의

가장 최근의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재외동포 현황 2017)에 따르면 재태한인의 인구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500명이다. 거주 자격별로 살펴보면 시민권자(58명), 영주권자(123명)의 수는 적고 대다수는 일반체류자(17,269명)와 유학생(3,050명)들이다.

해외 거주 한인을 교민과 체류자로 분리하는 경우 사실상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한인 중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교민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의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

1)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여러 다른 용어-동포, 교포, 교민 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재외한인, 재태한인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재태한인은 교민(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자, 또는 이들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거주 하는 자)과 일반 체류자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를 고려하여 교민이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했다.

채수홍은 “베트남 한인사회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존에 연구되어 온 한인사회들과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의 한인사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으며, 정주의사와 법적 지위도 유동적이고, 현지인과의 사회문화적 관계도 상당히 다르다. 기존의 재외한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정착형 이주자(settler)’보다는 ‘일시적 해외거주자(sojourner)’에 가까워 재외한인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조차 망설여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가속화되는 지구화를 배경으로 세계 각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해외한인의 존재양식은, 식민지시대와 개발도상국시절에 이주했던 재외한인 존재양식보다는, 베트남 한인과 유사한 존재양식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수홍 2017).”

같은 동남아 지역의 태국 한인사회는 베트남과 사정이 비슷하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로 이주해서 삶을 모색하는 해외한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태국 한인의 존재양태도 베트남과 더불어 예외적인 사례로만 취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태국 한인의 연구는 재외한인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성격의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재태한인에 대한 연구는 개설적 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이문웅 1987: 26-31 ; 한경구 1996: 87-99 ; 김영애 2008: 251-296). 필자는 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태한인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여부, 가족구성 등),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직업분포, 소득, 종교 등), 언어상황과 민족정체성의 유지 정도, 한인들의 태국에 대한 인식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했다(김홍구 2014).

이 연구는 2013년에 실시된 필자의 설문조사 방식의 정량적인 연

구에 이어서 심층적인 인터뷰에 의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재태한 인사회를 들여다 본다는 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2. 연구과정과 방법

필자가 처음 태국의 한인사회를 목격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이때만 해도 썬콕윗 15 맨하튼 호텔 인근 지역과 한인 식당 몇 군데에서 한인들을 다수 만날 수 있었다. 또 한인의 수가 많지 않아 지인을 통하면 웬만한 한인을 다 소개 받을 수 있었다. 1986년 태국 교민 수는 449명, 체류자의 수는 286명에 불과 했다.

이후 2013년 1년 동안 필자가 방콕 까셋삿 대학교 초빙교수로 본격적으로 한인 연구를 시작했을 때 한인사회는 2만명이 넘는 규모였다. 198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해외여행 개방에 따라 태국에 대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산업관련 진출한 교민들과 한국 투자 진출 증가 등 한·태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따른 상사와 지사원 및 투자업체 직원 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연구는 2013년 초에 관련문헌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방콕 거주 한인 458명의 표본을 갖고 수행됐다.²⁾ 당시에 한인들

2) 필자는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이라는 연구 논문(『동남아시아연구』 24권 3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재태한인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여부, 가족구성 등),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직업분포, 소득, 종교 등), 언어상황과 민족정체성의 유지 정도, 한인들의 태국에 대한 인식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방콕 거주 한인 458명의 표본을 갖고 수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허용오차는 ± 4.6 p이다. 조사대상은 편의 표본추출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이다. 조사데이터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인 SPSS 12.0을 이용해 코딩과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표와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교차표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인터뷰도 일부 병행했다. 방콕의 대형 교회, 사원, 주태 한국대사관, 주태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썬콕윙 12 한인상가 한국 음식점, 여행사, 한인 체육대회, 한인 국제학교와 토요학교, 재태 한인회와 한국문화원 주최 문화강좌, 재태한인회 월별 모임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방문하여 가능한 한 여러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들의 현지에서의 삶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일차 청취한 적이 있는데 이 글의 작성을 위해서 그 때의 자료들도 일부 사용했다.

이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인터뷰는 2017년 7월 7일 ~ 7월 20일과 8월 5일 ~ 8월 15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각계각층 한인 10여명을 집중적으로 심층 면접했다. 이들은 1960년대 초 이주한 교민 최고령자, 1970년대 베트남전 세대, 1980년대 중반 이주한 세대, 2000년대 이후 이주한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외에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 한인사회에 대하여 다른 시각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도 보고자 시도했다.

인터뷰는 이 연구 목적에 맞는 몇 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착 동기 및 정착 시기, 가족 관계, 자녀 교육, 한인사회의 시대별 변화와 평가, 현지에서의 문화적 경험,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갈등,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 한인-현지인 가족의 자녀 교육과 정체성 등.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태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와 과정, 현지의 일상적 삶의 생활양식과 정체성 유지, 현지로의 동화과정과 초국적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접할 수 있었다.

3. 이론적 논의

이 연구의 가장 큰 이론적 관심은 초국가주의이다. 재태한인의 이주현상을 하나의 틀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에서 초국가주의적인(transnational)문화의 흐름이라고 전제한다.

초국가주의는 현대의 국제이주가 과거에 비교해서 모국과 거주국 간의 쌍방향적인 인구이동이며 이주민이 거주국에서 정착하면서도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주목한다. 초국가주의의 첫 번째 특성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연계(linkage)이고, 두 번째 특성은 초국가적 연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성(simultaneity)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먼 거리의 이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빈번하고, 빠르고, 규칙성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주자들이 모국과 그들이 사는 정착국가들에서 동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가주의 연구자들은 연계와 동시성이라는 두 가지를 초국가주의의 특징으로 간주한다(Mazzucato 2000).

초 국가주의적 행태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의미한다. 둘째로 ‘정치적 초국가주의’는 출신지와 정착지 모두에서 정치적 권력이나 영향력을 취득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의미한다. 셋째로 ‘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는 출신지 국외에 거주하며 민족정체성의 강화나 민족의 문화행사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의미한다(Portes et al. 1999: 221).

초국가주의 현상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이주동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2003)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보다 높은 임금, 더 나은 취업 기회, 직업능력의 향상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동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이주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재태한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주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태국에 영구히 정착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주자와는 다른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초국가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이주민 연구들은 주로 이주의 배출-흡인요인과 이주의 경제적 영향 및 정부의 동화정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들과 이주자들의 종족적/인종적 정체성을 찾는 연구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포르테스(Portes 1997)는 초국적 이주민(transmigrants)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주민들이 양국을 넘나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중적 언어를 구사하고, 두 국가에 두 곳의 거주지를 유지하고, 이 두 곳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초국적 이주민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캐슬(Castles 2002)은 초국가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국민적 정체성을 넘어 모순적이거나 유동적인 정체성을 갖는다고 한다.

초국가적 공간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이주자들은 모국과 거주국, 그리고 중간의 경유국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층적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그들의 초국가적 생활을 펼쳐나간다. 그리고 이런 초국가적 사회적 장에서 초국가적 공동체와 소속감이 형성되어 모국, 경유국, 거주국에서 평행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Bruneau 2010).

이런 면에서 초국가주의는 오랫동안 서구에서 이주자들이 거주국에 통합되는 모델로 여겨졌던 동화(assimilation)와는 구별되는 양식을 보여준다. 즉 이주자들은 종족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거주국의 문화로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국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신분상승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베리(Berry 1987)는 사회참여와 문화정체성의 수준에 따른 소수민족 이민자의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현재 많은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이론들은 베리가 제시한 다차원적 문화적응 이론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의 유형화는 네 가지 범주가 있다. 통합(integration)유형은 모국의 문화정체성도 유지하면서, 체류국가의 새로운 전통과 문화도 수용하는 경우다. 동화(assimilation)유형은 모국문화의 정체성 유지 정도는 낮고, 체류국가의 문화 수용 정도가 높은 유형이다. 고립(isolation)유형은 이주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경우다. 주변화(marginalization)유형은 모국문화의 정체성 유지 정도나 체류국가의 문화 수용 정도 모두 낮다.

이와 같은 문화적응 유형은 이주사회 참여 정도와 민족문화와 정체성 유지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주민들이 정착하려는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는 직업과 소득, 교육, 사회활동, 타민족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민족문화와 정체성 유지는 민족언어 구사능력, 전통문화 보존실태, 현지인과의 상호교류 등에서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초국가주의 현상과 관련한 논의의 초점(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주현상을 초국가주의적 문화의 흐름으로 전제할 경우, 초

국가주의의 특징과 행태에 관한 것들이다. 초국가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계와 동시성이다. 초국가주의적 행태는 세 가지 행태—경제적 초국가주의, 정치적 초국가주의, 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로 나뉜다.

둘째, 이주 동기에 관한 것으로,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초국적 이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초국적 이주민은 양국을 넘나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두 곳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초국적 이주민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초국가주의는 오랫동안 서구에서 이주자들이 거주국에 통합되는 모델로 여겨졌던 동화(assimilation)와는 구별되는 양식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주, 적응, 정체성—을 재태한인 (교민과 체류자)의 경험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위 다양한 논의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I장에서 재태 한인사회의 형성과정과 이주동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일상적 삶 속의 생활양식과 민족정체성, IV장에서는 현지로의 동화과정과 초국적 정체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V장은 결론이다.

II. 한인사회의 형성과정과 이주동기

재태 한인사회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세대(1930 ~ 1940년

대)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징집병) 또는 군속으로 징용되어 태국 혹은 동남아 지역에 진출, 정착하였거나, 일제시대 중국 등에서 거주하다 종전 후 태국에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후 의미 있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대개 세 개 정도의 시기 구분—한국전쟁 직후(1950 ~ 1960년대), 베트남전 시기(1970 ~ 1980년대), 1980년대 중반 이후—이 가능할 것이다.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재태한인의 이주와 같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태한인의 경우 대체로 1980년대 중반까지(정착형 이주자가 다수인 때)는 경제적 이유가 중요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체류자 중심 이민사회”로 변한 후부터는 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단순하게(개인적인)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1. 1980년대 중반 이전

재태한인의 최초 세대가 태국에 거주하게 된 것은 경제적 이유가 컸다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지만 귀국하지 않고 ‘곡물창고’라고 불렸을 정도로 식량사정이 넉넉했던 태국에 눌러앉게 된 사람들이 1세대 한인이 되었다.

한국전쟁 후부터(1950 ~ 1960년대) 교민사회의 인적구성원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전쟁고아, 선교사, 연예인, 유학생, 유엔기구 직원, 건설회사 직원, 여행·호텔업자 등이 최초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전후 재건기에 본격적인 국가건설 과정에서 해외진출이 시도되고 태국군의 한국전쟁 참전도 태국진출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1962년 한국정부는 ‘인구조절과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국제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해외이주법)을 공포하고, 해외이주를 전면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시작했다.³⁾ 해외이주자의 규모는 1962년 연간 386명이던 것이 1970년에 1만 명(16,268명)을 넘어섰으며, 그 정점에 달한 1976년에는 4만 6,533명까지 증가했다(구지영 2014: 134). 해외이주법을 공포해 이민정책을 수립한 것은 태국으로의 이주를 활발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월남)전은 재태한인사회의 발전에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1964년 9월 22일 부터 시작해 1973년 3월 단계적으로 철수하기까지 8년여를 참전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인 기술자들이 군사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취업했다. 베트남전 경기가 침체되면서 한국인들은 그 무대를 태국으로 옮겼다. 또 태국을 징검다리 삼아서 중동과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다.⁴⁾

베트남전 세대(1970 ~ 1980년대)들의 이주 동기 역시 경제적 이유를 들 수 있다. 베트남에 한국의 건설회사, 토건회사, 군납회사, 운송회사들이 이어서 진출함으로써 후에 태국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는데, 한국인 기술자들은 한진, 현대, 삼환기업 등 한국기업들과 Vinnell, PA&E 등 미국기업들에 취업해서 준군사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동시에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했다. 베트남전 경기가 침체되면서 한국인들은 태국으로 옮겨왔다. 또 태국을 거점으로 하여 중동으로 진출하는 등 국제적인 경제활

3) 해외이주법은 '국민을 해외에 이주시킴으로써 인구를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해외에 선양한다는 목적 아래, 이주 자격, 이주 금지국, 이주 형태 등 이주 조건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건위원회, 『해외이주법공포의 건』, 국가기록원, 1962.

4) 1960~1970년대에 호주에서 일기 시작한 광산 개발붐으로 생겨난 고용기회를 찾아서 한인들은 호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72년부터 1975년 사이에 500여 명에 이르는 과일 기술자, 현역 제대 취업자들이 대거 호주로 이주했다(박병태 2008). 이들 중 일부는 태국을 거쳐서 호주로 이주했다.

동을 하는 한국인의 수가 늘어났다. 그들은 이른바 달러맛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 갈 수는 없었다고 한다.

2. 1980년대 중반 이후~현재

1986년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현황 자료에 의하면 태국 교민 수는 449명(남 288, 여 161명), 체류자의 수는 286명(남 160명, 여 126명)이다.⁵⁾ 1997년 재태한인의 수는 7,901명으로 198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재태 한인사회는 점차 “체류자 중심 이민사회”로 변했으며 이후부터는 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단순하게(개인적인) 경제적인 것 뿐 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한인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1985년 플라자 합의 결과와 1987년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활발해지자 한국에서 신발, 완구, 섬유 등의 수출형 노동 집약적 업종들이 공장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거 태국과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었다. 또 이 시기는 태국의 공업화와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기간이다. 태국경제는 1987년 이후 수출의 급속한 신장을 바탕으로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했다. 1987~1990년 중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런 요인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재태한인사회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시기에 관광산업관련 진출한 한인들도 크게 증가했다. 한

5) 교민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주부 92명(20.5%), 학생 66명(14.7%)을 제외하고 상업 80명(17.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비스업 48명(10.7%), 사무직 종사자 43명(9.6%) 순이다. 체류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주부 69명(24.1%), 민간상사주재원 38명(13.3%), 유학생 27명(9.4%), 종교인 22명(7.7%), 공무원과 상업이 각각 15명(5.2%) 순이다.

국 사회에서 ‘관광목적의 여권 발급’을 최초로 시행된 때가 1983년이었다. 그것도 만 50세 이상으로 200만원의 관광 예치금을 1년 이상 은행에 예치한 사람에 한해 발급했을 정도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연령이 낮추어지기 시작했다. 1988년 1월에는 40세 이상으로 조정됐고, 드디어 그해 7월에는 30세로 낮춰지면서 방문횟수를 연 2회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폐지됐다. 해외여행의 측면에서 볼 때, 1989년 1월 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조치’가 시행됐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1385&cid=57618&categoryId=57619>, 검색일 : 2018.03.12.).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가 선언되면서 태국 관광객 수는 1990년에 40만 명, 2000년에는 50만 명으로 늘었으며 2006년에 110만 명의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⁶⁾ 관광의 형태도 국제회의나, 세미나 참석은 물론, 골프투어, 가족단위로 즐기는 해변투어, 정글투어까지 범위가 확대 되었다.

셋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어서 2000년대 초 초국가주의 현상으로서 ‘재태한인의 대규모 이주현상’은 1990년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 지역에서 본격화된 지역협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세계 각지의 지역주의의 심화로 인해 초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한 것을 큰 계기로 하여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 지역 국가들은 위기의식을 공유했으며 동북아-동남아경제의 연계를 인식했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시작으로 동북아와 동남아가 서로 별개가

6) 1986년에 한국관광객 27,000여 명이 태국을 방문했다.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위이고, 나아가 하나의 동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단위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 결속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며 초국가적 인적 문화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이재현 2009). 이 시기에 재태한인의 이주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 초국가주의 현상으로서 ‘재태한인의 대규모 이주현상’ 중 눈에 띄는 것은 한류와의 관련성이다. 태국 속 한류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보다 뒤늦게 자리 잡은 듯하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현재 태국 속 한류는 영화·TV 드라마·K-Pop 등은 물론이고 온라인게임·음식·화장품·한국어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태국 속 한류는 재태한인 이주현상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Ⅲ. 일상적 삶과 민족정체성

1.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재태한인의 인구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500명 (남성 12,300명, 여성 8,200명)이다. 거주 자격별로 살펴보면 시민권자 58명, 영주권자 123명, 일반체류자 17,269명, 유학생 3,050명이다. 지역별로 방콕 13,700명, 치앙마이 3,500명, 춘부리와 라영 등(한국 공단 밀집지역)에 2,000명, 푸껫 1,3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7%가량이 방콕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방콕 거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쑤쿰윗 로드, 텅러, 프른쨌, 싸턴, 썰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이 있는 반면에, 프라람 3, 프라람 9, 랏차다, 팟타나칸, 방까비 등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도 있

다. 방콕 길목에 위치한 방나는 한국투자기업이 밀집해 있는 촌부리 공단과 가까워서 신흥부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태한인들의 이주동기는 해외파견근무, 새로운 사업기회, 본인 및 자녀교육의 목적, 보다 나은 삶의 질 등의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의 한국에서 직업분포는 관리사무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교육연구직 순으로 많다(김홍구 2014: 218-219).

재태한인들은 매우 높은 학력(대재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도가 다소 낮은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태국에 이주해 학력대비 직업안정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인들의 주 종사 업종은 여행사, 식당, 골프장, 쇼핑센터 등으로 한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홍구 2014: 221).

한인들의 월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중’ 이상이 많은 편이지만,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도 상당수 있어 교민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김홍구 2014: 221). ‘중’ 이상이 많은 편이라는 표현은 비교대상이 태국인인가, 한국인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한인들은 삶의 방식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국 내 최하위층은 한국인 가이드이다. 가이드는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패키지 여행이 많이 줄어들고, 여행객들도 SNS 등을 통해서 여행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었다. 심지어 한 달에 10,000-20,000바트를 버는 가이드도 있다. 대부분의 가이드들이 한국서 살기 어려워 경제적인 이유로 태국을 찾아 왔는데 생활이 힘들어 다시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가이드들은 프라람 3, 프라람 9, 랏차다 등 집값이 싼 곳에 모

여 산다. 가이드 사이에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회사에서 능력 있는 가이드에게는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는 재력 있는 관광객을 맡긴다. 가이드의 봉급은 한국관광객이 현지에서 사용한 돈과 비례한다. 선택 관광(마사지, 음식점 업그레이드) 이나 쇼핑이 주요 수입원이 된다. 가이드의 일상은 일이 없으면 집에 있고, 있을 때만 밖에 나간다. 못 사는 가이드는 카우니아우, 무땡, 꾸어이 띠아우를 먹고 지낸다(남, 37세, 회사원).

반면에 부유층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태국인 남편(대학교수)과 결혼하고 맞벌이하는 한국인 직장 여성은 딸 두 명을 태국의 정규 엘리트로 키우고 싶어서 태국 최대명문 쫄라롱껀대학교 부속학교(짜딕 쫄라)에 기부금을 내고 입학시켰다. 태국인 남성 사업가와 결혼 한 한국 여성은 플루트 강사이다. 아침에 헬스클럽 가서 PT의 지도를 받고,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국제학교에서 1주에 1번 강의 하고, 개인레슨도 하고, 통역 일도 한다. 가끔 음악회나 오페라도 즐긴다. 태국은 문화공간이 절대부족해서 백화점에 많이 놀러 간다. 방콕에는 3~8억원대 콘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 4,000บาท 짜리에 사는 사람도 있다. 국내여행이나 인근국가 여행, 골프, 스파와 마사지, 에스테틱 문화를 즐기고, 호텔 년 회원권이나 술집 멤버십 가입비가 몇 백만원 불과해 고급스러운 생활도 즐길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집단은 주재원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다.

월급은 고스란히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콘도제공, 자녀학비 제공, 유류비, 의료비, 품위유지비, 필수식량까지 제공 받는다. 팀장과 법인장급은 7~8만 บาท 콘도에 살고 과장급은 5만 บาท 콘도에 산다. 법인장의 순수월급은 40-50만 บาท, 판공비는 10만 บาท이다. 해외적응비(언어연수비)는 초기 3~4개월 나오는데 한 달에 3~4

만박이 된다. 법인장들은 썬쿵윗 24 고급 주택단지에 많이 살고 있다(여성, 30세, 회사원).

이런 주재원들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와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현지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사회에의 적응이 매우 느리다. 이들은 취미활동이나 학연, 지연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친목 조직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한인 사회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는 경향이 있다.

2. 일상적 생활양식과 민족정체성

이 장에서는 재태한인의 생활양식과 문화적응 및 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이주해온 한국인들은 현지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모국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체류국가의 새로운 전통과 문화도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태한인들의 민족문화와 정체성 유지 정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전통 생활양식 보존, 한국어 구사능력, 한인학교·종교기관·대중매체, 한인회·경제단체·대사관 등과 같은 한인 조직들의 역할, 현지인과의 상호교류, 거주지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양식을 보면,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는 거의 모든 가정과 한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한국식의 가치관과 규범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식 명절, 조상숭배, 가족제도, 혼례도 행해진다.

이 같은 경향은 앞에서 언급한 필자의 2014년 연구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족공동체에 대한 동일시 정도와 정서적, 행위적 애착도를 알아보았다. 재태한인들은 자신을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긍정율은 무려 95.9%에 달했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애착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항목에서 정치제도와 전통문화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긍정율이 66.5%와 77.3%였다. 결혼상대자와 음식 선호도를 살펴보면, 한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65.3%였지만 ‘상관없다’는 응답도 34.4%나 되었다. ‘한국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답은 37.0%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민족 동일시나 애착도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률이 대체로 높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교, 종교기관이나 대중매체의 존재여부는 이민 후 현지사회에의 참여와 문화적인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태국의 한인사회에서 한글 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인 이민자의 대부분은 자녀들이 장차 미국과 유럽, 또는 호주 등의 대학에 진학한 후 전문직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의 성공이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영어교육과 서구식 가치관 및 규범의 주입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글 학교(방콕토요한글학교)가 한 곳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 주요 이유 중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 방콕에서 먼 지방(민부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방콕으로 캠퍼스 이전을 원하고 있다.

현재 방콕에는 기독교 한인교회가 10개 있다. 방콕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과반수가 훨씬 넘게 기독교를 믿고 있다. 한인 교회에 다니는 한국인들을 사귀어 외로움을 덜고, 일자리나 여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현지사회에 적응하는 방법도 익히게 된다. 하지만 이민 2세대에게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도 한인교회의 기능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인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예배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 한편, 방콕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사찰 4개, 천주교회는 1개에 불과하다. 종교기관들은 이른바 ‘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 행태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단체 역시 한인들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현지사회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관이다. 한인 경제단체는 한인과 한국기업 간의 교류, 즉 한상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일뿐 아니라 한태 양국 상공인들의 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단체로 한태상공회의소, 재태국 기업체 협의회, 한태 관광진흥 협회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 중 한태상공회의소가 조직과 재정면에서 제일 탄탄하고 제도화가 되어 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적 초국가주의’ 행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태한인들은 종교기관이나 경제단체 등에 대한 신뢰와는 다르게 한인회 조직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한인회 조직이 한인들의 문화적응 및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인회나 한인사회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류는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현지생활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한 경우이다. 이들은 한인회 활동에 적극적인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른바 ‘정치적 초국가주의’ 행태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재외공관도 한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은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며, 한인들의 초국가주의 행태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대사관의 활동과 기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이 어떻든 한인들은 대사관 업무가 VIP 의

전역할에 치우쳐 있고,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없으며, 대사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한인단체나 개인들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부재하고, 태국 공무원 조직과 인맥에 어두워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2~3년 단기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이 주요 원인이 될 것 같다.

대중매체 역시 한국인들의 적응과 동화, 그리고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나 후원을 통하여 한인사회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방콕 지역에는 한글로 발행되는 격주간지 1개(교민잡지)와 월간지 3개(교민광장, 한아시안 판, 피플)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요즘 한인들은 인터넷 티비(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를 통해서 한국소식을 접하게 한다. 언어 제약과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인들로 하여금 문화적 적응을 지연시키고, 현지 사회와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인들은 대체로 다른 민족과의 관계나 현지사회에 대한 참여는 소극적인 편이다. 이민 1세대 중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현저히 진출자는 극히 적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인들은 언어의 제약과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활동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무역 등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거래 선은 한국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현지사회에서 고립된 적응형태를 보이는 소수민족은 주생활권이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Balakrishnan and Kralt 1987). 태국에서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은 특정 거리(Sukhumvit Street)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인업소들의 밀집현상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거주지역은 비교적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다. 한인업소들의 밀집은 한인교포들의 정신적 안정감, 세력형성 등에 기여하는 바 크지만, 현지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주지역이 분산되면 소수민족으로서 정치적 세력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족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불리하지만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촉진시켜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김두섭 1998).

재태한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주시할 점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초국가주의’ 행태가 근래 들어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재태한인들은 고국에 대한 미련과 향수를 버리지 못하며, 태국의 정치나 사회문화보다는 한국의 정치,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태국 한인사회의 경제 역시 한국의 경제상황 및 사회적인 분위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 대부분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정과 한국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많은 한인들은 태국정치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지만 그것은 자신의 사업상 이익에 국한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정치불안이 조성되고 쿠데타가 발생하면 한국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연쇄적으로 한국식당, 기념품점 등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에서 정치적 권력이나 영향력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최근에 한인들의 한국 정치에 관한 관심은 촛불시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근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국보다 부유한 삶을 찾아 태국에 왔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은 사치라고 생각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정치적 관심은 한국에서보다 태국에 와서 더 갖게 된 것 같다.

사실 한국에선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촛불시위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관심이 커졌다. 요즘은 북한 핵무기와 북한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에도 관심을 갖는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를 거치면서 한국정치에 관심을 크게 갖게 된 것 같다(남, 38세, 회사원).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시할 의견은 돈 없으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돈 있으면 한국음식을 먹지만, 없으면 태국거리 음식이나 세븐 일레븐 편의점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태국사람과의 접촉도 더 많이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아쑁(Asok)에 있는 한국 입시학원에 보내고 입시준비를 시켜서 자식들이 한국화 된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뿌리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들은 자식들을 한국인이나 돈 있는 태국인과 결혼 시키려고 한다. 추석이나 설에는 무조건 한국에 들어간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 점차 뿌리가 없어지게 된다. 재태한인들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살다가도 대부분 마지막 빼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여, 40세, 사업가).

IV. 양국을 넘나드는 삶의 방식과 초국적 정체성

1. 양국 넘나들기

일반적으로 재태한인은 양국을 넘나드는 이중적인 초국가적 삶을 살아가는데, 두 국가에 두 곳의 거주지를 유지하고,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는 모국과의 연계와 동시성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가족, 친지와 카톡, 보이스트톡, 영상통화 등 SNS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톡과 영상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챙기기도 한다. 모국과의 관계유지(연계)를 절대적으로 촉진시키는 SNS는 이주자들이 모국과 그들이 사는 정착국가들에서 동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의 초국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자주 안부전화도 드리고 동영상 메시지를 교환하며, 카톡 등으로 연락하고 있다. 한국 지인과는 라인이나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다.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1주일 정도 체류하는데 이 때 연락을 꾸준히 하는 친구도 만나고 건강검진도 받는다(남성, 38세, 회사원).

한국과 태국에 두 개의 법인이 있어서 자주 왕래하며, 서울에 집도 있다. 카톡과 영상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챙기기도 하고, 지인의 근황을 SNS를 통해서 관리하기도 한다. 또 태국이 한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친지들이 자주 방문한다. 장인과 장모님은 흑한기 3개월동안 태국에서 거주하신다(남성, 53세, 사업가).

모국과의 연계와 동시성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양국간 물리적 거리이다. 태국과 한국과는 비행기로 5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쉽게 왕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은 1년에 최소 한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가족과 친지들도 휴가철이면 태국을 방문한다. 더욱이 1년 내내 상하의 나라인 태국은 날씨가 따뜻하고 값싼 골프장이 많아서 친척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흑한기를 피해 몇 달씩 장기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한인들은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고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한국과는 주로 SNS로 소통한다. 한국에 사는 누님 식구들이 1년에 4번 방문하여 최소 15~45일을 거주하면서 골프를 치며 같이 보낸다. 치앙마이에 거주하지만 가족관계 유지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 나도 한국에 1년에 3,4번씩 방문하고 있다. 태국은 부산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다(남성, 53세, 사업가).

SNS는 모국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양국을 넘나드는 이중적 삶을 영위하는 한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태국어가 유창한 소수의 사람들은 SNS 외에 인터넷 등 태국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입소문과 교민미디어를 통해서 태국뉴스를 접하거나 영자신문을 주요한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정보 역시 SNS와 함께 인터넷 TV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도 얻는다. 디지털 미디어는 재태한인들의 모국과의 연계와 동시성을 크게 촉진시키고, 이중적 삶의 형성에 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국에 대한 정보는 직원들에게 듣거나, 페이스북이나 라인 등 각종 SNS를 통해서 접한다. 한국포탈사이트와 유튜브에서 태국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태국어를 알기 때문에 태국신문, 인터넷, TV를 보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는 활자신문보다는 인터넷 TV를 통해서 현지정보를 획득한다. Spring News, Siamhahe, Thai News, 전자신문 타이랏과 데일리뉴스 등을 본다(여성, 37세, 대학원생).

태국정보는 영자신문을 구독하여 얻고 있으며, 교민 미디어인 한아시아, 연합통신 등을 통해서도 얻는다. 일본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일본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태국뉴스를 보기도 한다. 현

재 한국신문은 2,3년 전부터 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교민들은 인터넷 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남성, 72세, 프리랜서).

2. 자녀 교육과 정체성

일반적으로 양국을 넘나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국적 이주민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재태한인은 법률적으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재태한인 중 영주권과 시민권자수는 200명에 못 미친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대부분이 한국인 고유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들은 본국에 사는 한국인과는 분명히 다른 정체성을 표현하게 된다. 태국여성과 결혼한 이민원로 2세나, 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의 2세들은 비교적 현지사회에 동화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위주의 교육을 받은 한국인 가정 2세들은 현지화 정도가 약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약화된다.

한인 1세대를 포함한 이민원로들은 태국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다. 그들의 2세 아이들은 완전히 태국사람으로 자랐으며 사회적 기반을 잡은 경우가 많다.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어머니가 키우게 되고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아버지는 자식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한 원로 한인은 슬하에 남매를 두었다. 아들은 대한항공사에, 딸은 타이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100% 태국인으로 키웠으나 자식들이 태국인이 되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자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애

착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는 지금도 자식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한다.

양국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으나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대부분 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호주 등 제3국에서 돈 있는 중국계 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여자가 남자를 맞추어 산다. 화교는 대가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태국어를 배우게 되며 자식은 한국어를 엄마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대부분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태국남성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 이들 2세는 태국식 교육을 받고 태국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한국 남자가 상류층 태국여성을 만난 경우에 남자가 여성에 맞추어 산다. 아이들도 당연히 엄마를 따라 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한국 남성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태국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태국학교에 보내고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우려하지 않아 당연히 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한국 남성과 평범한 태국여성이 결혼해서 자식을 둔 경우에도 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태국에서 사업하는 한국남자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사업을 물려주려면 태국인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하다. 아버지가 한국인 선원이었는데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태국여자와 결혼한 경우이다. 결혼 후 딸은 태국국적을 갖았는데도 태국어를 완벽하게 못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태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해서였다고 한다.

태국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한 한인은 평범한 태국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자신이 바빠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지 못한 자식들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두 아들은 태국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큰 아들은 영국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일본회사를 다니다가 CP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서울대에서 언어연수를 마쳤다.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뚜렷한 정체성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다. 태국인화 되어 가는 자식들에 대해 아쉬움을 갖게 된다(남성 70세, 사업가).

하지만 많은 한국인 가정의 한인들은 자녀들을 (태국인 학교 보다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 세계인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영미식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국제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리젠트 국제학교(The Regent's International School Bangkok)의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교는 종교, 성, 인종,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들을 유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는 Round Square처럼 현대적인 교육에 영향을 받은 최고의 영국식 교육을 제공합니다. 리젠트에서는 30여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국제적 다양성과 공동체의식을 만들어 나갑니다(<http://www.regents.ac.th/1562/>, 검색일 : 2018.03.12).

한편 한인자녀들을 위한 방콕 한국 국제 학교는 커리큘럼이 한국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역점을 두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학교 교육현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한글날 행사 등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도하며 교과관련 수업 등을 통해 <우리역사 바로 알기> 등 재태 재외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http://kisbangkok.co.kr/44>, 검색일: 2018. 03. 19). 한인자녀들을 위한 방콕 한국 국제 학교보다는

일반적인 국제학교를 선호하여 국제화 교육을 받는 한인 2세들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태국에서 국제화 교육을 받은 한인자녀들은 분명히 한국학생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태국은 풀어진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단을 칠 수가 없고, 질책보다는 칭찬을 해야 효과가 난다. 학생 측에서 보면 사교육이 없는 행복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터전과 뿌리가 약하다. 국가관과 정체성도 희박해 진다. 그래도 축구전에서는 한국팀을 응원한다(남성, 53세, 사업가).

초등학교 3,6학년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다. “한국과 비교해서 경쟁이 덜 치열하여, 한국에 들어가서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고, 방콕에 사는 한인들의 자식들은 착하단 생각이 든다(또래의 한국학생들은 영악하다). 국제학교에서는 한국과 달리 기선잡기나 왕따 시키는 현상이 없다. 학생들이 한국과 같이 악착같지 않다(여성, 주부, 46세).

3. 언어와 정체성

초국적 이주민의 특성 중 한 가지는 이중언어의 사용이다. 언어는 문화적 정체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데, 언어를 학습할 때는 문자적인 언어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의 문화도 함께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체류 국가의 언어 구사정도는 곧 해당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문화권의 언어 구사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화권에 참여하는 정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⁷⁾

일반적으로 초국적 이주민은 양국을 넘나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중적 언어를 구사하고, 두 국가에 두 곳의 거주지를 유지하고, 이 두 곳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재태 한인들도 한국어와 태국어 (또는 영어) 라는 이중적 언어를 구사하지만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민생활 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언어문제다.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태국어에 익숙하지 못하다. 부모들은 영어든 태국어든 언어장벽 때문에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과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한인 이민사회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며, 태국사회로의 동화가 힘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2014년 연구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재태한인들의 태국어 구사능력은 그리 높지 않았다. 태국어가 ‘유창하다’와 ‘매우 유창하다’의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소득수준별로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소득 상위층이 소득 하위층보다 태국어 구사능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어를 구사하지만 제한적이거나, 읽고 쓰지 못한다는 비율은 각각 47.7%와 45.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태국어를 구사하면서도 읽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태국어를 배우더라도 말로만 배운다는 의미다. 태국어는 한국어와는 아주 상이하다. 태국어는 고립어이며 성조어이고 문자도 고유문자를 갖고 있어서 배우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한인 2세들의 경우 회화 위주의 태국어 공부를 한다. 문자를

7)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모국어와 체류 국가의 언어 구사능력 및 문화적응 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모국어가 우세한 청소년들은 주로 분리 유형을 보인 반면 체류 국가의 언어가 우세한 학생들은 체류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화 유형을 보였다(강재원 2012; 문영하 2012).

모르고 말로만 태국어를 배우면 당연히 일정수준에 오른 후 더 이상 배움의 진전이 없게 된다.

캡쿤카 (깍쿤카) 라고 한참을 사용했는데 하루는 직원 중 태국어과를 졸업한 학생이 왜 그렇게 발음하느냐고 반문해서 당황한 적이 있다. 나는 거의 10년을 캡쿤카라고 사용했다. 태국인 남편에게 왜 지적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알아들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나는 글보다 말을 먼저 배우고, 읽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듣고 해석했다. 태국 간판에는 영어가 많아서 불편 없이 지냈다. 비서에게 계약서를 읽어보라고 해서 해석했으며, 회사이름도 길이에 따라서 분류했으며, 제출서류도 서류에 찍힌 여러 가지 모양을 보고 찾고는 했다. 글을 배운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태국어로 쓰여진 학교 통신문을 해석할 필요성 때문이었다(여성, 45세, 회사원).

과거 태국 주재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어 강사직을 맡고 있는 한인도 수십년 태국생활을 했지만 읽고 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언어장벽 때문에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과거 지사장 때 AUA(American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에서 6개월 동안 타이어를 배웠다. 당시 말하는 것이 급해서 말부터 배웠는데 글까지 배웠으면 훨씬 격조 있는 타이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금도 태국신문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남성, 72세, 프리랜서).

태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태국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화권에 참여하는 정도도 훨씬 높아진다.

한국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 않고 화부터

낸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태국사람들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했다. 태국어가 잘 안 되는 한인들은 태국인과의 교류도 적은 것 같다. 태국어를 잘 하는 한 지인은 태국사람들과 스쿠어다이빙 동호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다. 태국어를 모르는 경우 심하게 이야기 하면 한인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쭈쿰윗 12에 행동반경이 국한되는 경우도 있다(남성, 38세, 회사원).

원로 한인은 태국여성과 결혼하여 수십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태국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한가지로 언어를 들고 있다.

1970년대 베트남전 끝나고 10살 연하의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한태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주석을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도 했지만 태국어를 배우지 않아 어려움을 당했다. 같이 일하던 태국인과는 평소에 영어로 의사를 소통했는데 그가 사기를 친 것을 한참 뒤에야 알고 낭패를 보았다. 이 일로 나의 부인은 한국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 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 (한국어를 모르는) 아이들과도 영어로 소통한다. 그래서인지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다(남성, 83세, 교민원로).

태국남성과 결혼한 한 한국여성은 요즘 와서 태국식으로 자라난 자식들과의 문화적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성장하니 언어문제로 문화갈등을 겪는다고 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감을 느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언어 소통의 문제는 현지 문화이해와 적응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디테일한 감정 표현이 안 되고 전문 용어를

구사하거나 감정 표현하기가 어렵다.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때 언어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인 사장이 약속시간이 늦어서 운전사에게 빠이 레우 (빨리 가) 라고 할 것을 어순을 바꿔 레우 빠이 (너무 빨라) 라고 했다. 언어의 미숙이다. 태국어 어순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전후순서가 반대이다. 그 말을 들은 태국운전사가 속도를 계속 줄이게 되고, 한국인 사장은 더 크게 레우 빠이 라고 하면서 화를 계속 냈다는 말도 전해진다. 언어문제로 인한 오해가 많이 생긴다(여성, 36세, 회사원).

한인들의 태국어 능력이 문제가 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태국어를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20~30년 전에 태국에 건너온 사람 중에서는 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태국어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특이한 현상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재원들의 언어 실력이다. 이는 필자의 2014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던 사실이다. 조사결과 소득 상위층이 소득 하위층보다 태국어 구사능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예외가 주재원들이었다.

주재원들의 언어능력은 비교적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영어로 부하 태국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다. 간단한 태국어만 구사하며 언어가 소통수단이 아니라 지시하고 지시받기위한 도구일 뿐 이다. 태국 고객을 만날 때는 영어를 잘 구사하는 태국 직원을 대동하여 영어로 말하고 태국어로 통역을 시킨다. 또는 현지채용 한국인에게 통역을 시키기도 한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언어연수비용으로 태국어를 배우지 않고 영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태국근무는 3~4

년이면 마칠 것이니 태국어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개인적으로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언어의 제약으로 그들이 접촉하는 현지인들이나 현지사회 경험도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태국사회를 이해하기 힘들고, 극단적인 경우 그들이 주로 만나는 태국인은 집안 도우미(매 반) 뿐이고 자기가 보는 것이 태국의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할 것이다. 근무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 간 후에도,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재원 중에는 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현지문화 경험을 부지런하게 쌓으려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V. 결론

태국에서 한국인의 정착은 2차세계대전후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재태한인들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한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인들 다수는 2000년대 이후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교민들의 수는 극소수이고, 일반 체류자가 수적으로 훨씬 많다.

이 연구는 각계각층 한인들과의 심층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태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와 과정, 일상적 삶속의 생활양식과 정체성, 현지로의 동화과정과 초국적 정체성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 중요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주동기에 관한 것이다.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재태한인의 경우 대체로 1980년대 중반까지(정착형 이주자가 다수

인 때) 는 경제적 이유가 중요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체류자 중심 이민사회”로 변한 후부터는 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단순하게(개인적인)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1985년 플라자 합의 결과와 1987년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활발해 지자 수출형 노동 집약적 업종들이 공장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거 태국과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었다. 또 이 시기는 태국의 공업화와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기간이다. 이런 요인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재태한인사회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조치’가 시행되면서 관광산업관련 진출한 한인들도 크게 증가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어서 2000년대 초 초국가주의 현상으로서 ‘재태한인의 대규모 이주현상’은 1990년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 지역에서 본격화된 지역협력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일상적 삶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한인사회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재태한인들은 매우 높은 학력(대재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안정도가 다소 낮은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한인들의 월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중’ 이상이 많은 편이지만, 빈부의 격차도 생겨나고 있다. 태국 내 최하위층은 한국인 가이드이다. 한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집단은 주재원이다. 주재원들은 경제적인 부와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현지사회에의 적응이 느리다는 특징이 있다.

재태한인들의 일상적 생활양식과 민족정체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이주해온 다수의 한국인들은 모국의 문화정체성도 유지하면서, 체류국가의 새로운 전통과 문화도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는 거의 모든 가정과 한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종교기관들은 이른바 ‘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 행태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단체 역시 한인들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현지사회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관이다. 반면에, 한인회 조직이나 재외공관은 문화적응 및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나 후원을 통하여 한인사회를 결속시키고 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인들은 대체로 다른 민족과의 관계나 현지사회에 대한 참여는 소극적인 편이다. 태국에서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은 특정 거리(Sukhumvit Street)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며, 거주지역은 비교적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족정체성강화나 현지동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태한인들은 정치적 초국가주의적 행태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 한인들의 한국 정치에 관한 관심은 촛불시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 없으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셋째는 초국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초국가적 삶을 살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 SNS가 모국과의 연계와 동시성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태국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도 SNS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된다.

재태한인이 법률적으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국에 사는 한국인과는 분명히 다른 민족정체성을 표현하게 된다. 태국여성과 결혼한 이민 2세대, 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의 2세대들은 비교적 현지사회에 동화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위주의 교육을 받은 한국인 가정 2세대들은 현지화 정도가 약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약화된다.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체류 국가의 언어 구사정도는 곧 해당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재태한인들은 언어 장벽으로 한인 이민사회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며, 태국사회로의 동화가 힘들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부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경우에 태국어 구사능력도 높지만 주재원들 중에는 언어능력이나 현지문화적응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한인사회 발전과정과 이에 따른 연구주제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태국 한인사회는 태국의 정치경제적 변화, 한국과 태국의 관계, 그리고 한인내부의 사회경제적 변화 등 한인공동체의 양적,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 한국과 태국 양국은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인적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소통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양국의 이런 관계를 배경으로 경제적 기회를 찾아 태국으로 이주하며 일시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정착하는 한인도 증가하고 있다.

양국관계가 돈독해지고 인적, 물적 교류도 급속하게 늘어감에 따라 점점 더 태국 한인의 삶을 단순화하게 정형화하여 묘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한인사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분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분화된 집단들이 서로를 어떻게 구별하면서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젠더나 세대가 다른 한인들의 한인사회에 대하여 다른 시각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도 본격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 뿐 만 아니라 이 연구는 주로 교민 67%가 거주하고 있는 방콕 한인사회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 연구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태국의 한인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원. 2012. “다문화 호주사회의 문화적응과 민족의 고유한 스포츠 문화참가: 한인 1.5~2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외한인연구』 27: 7-59.
- 구지영. 2014. “동북아시아 해항도시의 접촉과 갈등에 관한 사례연구—한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2: 134.
- 김두섭. 1988.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21(2): 144-181.
- 김영애. 2008. “1960-70년대 태국 사회 속의 한국인.” 한국태국학회. 『한태관계의 어제와 오늘』. 251-296.
- 김홍구. 2014.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24(3): 207-252.
- 문영하. 2012. 『몽골 청소년의 몽골어·한국어 숙달도와 문화적응 유형의 삼각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태. 2008. “한인동포사회의 정착[1968-1979].” 『호주한인 50년사』. 호주한인 50년사 편찬위원회. 38-72.
- 스티븐 카슬, 마크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 윤인진. 2013. 『세계의 한인이주사』. 파주: 나남.
- 이문웅. 1987. 『동남아 한국교민 연구자료집』.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이재현. 2009. “한-아세안 관계개관: 발전과 현황.” 한-아세안 관계 현황과 전망 워크숍. 외교안보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2009년 4월 30일).

- 채수홍. 2012. “베트남 거주 한국인의 초국적 경험 : 공장 매니저와 주재원을 중심으로.” 김홍구 외. 2012. 『한국 속 동남아현상 : 인간과 문화의 이동』. 25-43. 서울: 명인 문화사.
- 채수홍. 2017. “한인의 베트남 정착과 사회경제적 분화.” 2016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 연구: 해외한인 연구사업 1차년도 집필분.
- 한경구. 1996. 『세계의 한민족-아시아태평양』. 서울: 통일원.
- Balakrishnan, T. R. and John Kralt. 1987. “Segregation of Visible Minorities in Montreal, Toronto and Vancouver.”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138-157.
- Berry, J. W.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Leo Driedger (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223-239.
- Bruneau, M. 2010. “Diasporas, Transnational Spaces and Communities.” Ch. 2 Rainer Bauböck and Thomas Faist (eds.).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phen. 2002. “Migration and Community Formation under Condition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6(4).
- Mazzucato, V. 2000. “Transnational Networks and the Creation of Local Economies: Economic Principles and Institutions of Ghanaian Migrants at Home and Abroad.” Nederlandse Organisatie voor Wetenschappelijk Onderzoek, grant number 410.13.010P.
- Portes, Alejandro. 1997.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 799-825.

Portes, Alejandro, Luis E. Fuarnizo, and Patricia Landolt. 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 217-237.

<온라인 자료>

<http://kisbangkok.co.kr/44>(검색일: 2018. 03.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1385&cid=57618&categoryId=57619>(검색일: 2018.03.12).

<http://www.regents.ac.th/1562/>(검색일:2018.03.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147&cid=40942&categoryId=31713>(검색일 : 2018.03.18.)

(2019.01.11. 투고, 2019.01.18. 심사, 2019.02.01. 게재확정)

<Abstract>

The Koreans Living in Thailand and Transnationalism

KIM Hongk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s living in Thailand in relation to transnationalism. The main content of this research i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community, migration motivations of Koreans living in Thailand, daily life and transnational identity.

Many studies of transnational migration argue that for economic reasons, migrants migrate to a better developed country. But since the mid-1980s, the Korean community in Thailand has gradually changed to a “sojourn-oriented immigrant society” and the number of Korea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not simply for economic reasons. The reason is due to the investment rush of Korean companies, the increase of tourism by the liberalization of tourism, and the full-scal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following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Koreans living in Thailand, who have mostly immigrated since the 2000s, are undergoing a type of integration that embraces new traditions and cultures of the country while maintaining the cultural identity of their motherland in the process of adapting themselves to local society.

In general, Koreans living in Thailand live a double life, maintaining two residences in both countries and a close relationship with his motherland. Social Networking Service has been shown to greatly promote the linkage and simultaneity with the mother country.

A transnational immigrant who lives a double life forms a multiple, variable, and hybrid identity, not a single identity that is fixed to a nation.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earlier immigrants married to a Thai woman or households that Thai and Korean married are relatively well-assimilated in the local community. In comparison, the second generation of people who have immigrated since the 2000s have attended international schools and received English-oriented education, and the degree of localization is weak and their identity as a Korean is also weakened.

In relation to language and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adaptation, the degree of linguistic competenc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level of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the country 's culture. Many Koreans living in Thailand are trapped in the border of Korean immigrant society with language barriers. So they tend to be difficult to assimilate into Thai society.

Key Words: Koreans living in Thailand, migration motivation, lifestyle and national identity, transnational identity, child education, language

